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3)

- 보령시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보령시(保寧市)는 1914년에 보령군·남포군·오천군이 통합되어 보령군이 되었고, 1986년에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되면서 대천시와 보령군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도농복합시로 통합되어 보령시가 되었다. 따라서 1914년 이전 보령시의 경역은 보령·남포·오천으로 나뉘어 있었다.

보령은 삼한시대에 이곳에 만로국(萬盧國)이 있었고, 백제 때에는 신촌현(新村縣) 또는 사촌(沙村)이었다. 통일신라에서는 문무왕 6년(666)에 웅진도독부가 설치되면서 결성군(潔城郡) 신읍현(新邑縣)에 속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24년(941)에 보령(保寧)이라는 고을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현종 9년(1018)에 운주의 임내에 속하였다가, 예종 1년(1106)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초기인 태종 13년(1413)에 감무 제도를 폐지하고 현감으로 고치면서 보령에도 종6품의 현감을 두었다. 조선시대 보령 고을의 수령은 인근의 충청도수군절도사가 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충청도수군절도사 겸 보령도호부사라고 불리웠다. 보령현은 1895년의 23부제에서 홍주부 보령군으로 편제되었으며, 1896년의 13도제에서는 충청남도 보령군(4등군)이 되었다.

남포(藍浦)는 백제의 사포현(寺浦縣)으로 신라에서 남포현이라고 이름을 고쳐 서림군(西林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현종 9년(1018)에 가림현(嘉林縣) 임내에 옮겨 붙이었는데, 다시 감무(監務)를 두었다. 그런데 1380년에 왜구(倭寇)로 인하여 인물(人物)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공양왕 2년(1390)에 진성(鎭城)을 설치하고 유리(流離)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안집(安集)시켰으며, 조선 초기인 태조 6년(1397)에 비로소 진병마사(鎭兵馬使)를 두고 관남포현사(判藍浦縣事)를 겸하게 하였다. 이 시기 남포진은 순성진 이산진과 함께 충청도에 설치된 3진의 하나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현에 현감을 파견하기 시작하는 태종 13년(1413) 이후에도 남포에는 남포진첨절제사가 남포현감을 겸하였다. 세조 3년(1457)에 진관체제를 실시하면서 남포진은 혁파되고 비로소 첨절제사가 겸하지 않는 남포현감을 두었다. 남포현은 1895년에 홍주부 남포군이 되고, 1896년에 충청남도 남포군(4등군)으로 편제되었다.

오천(鰲川)은 세조 12(1466)에 충청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당시 지명은 회이포(回伊浦)였고, 현재의 보령군 금신면(金神面)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다. 당시 이곳에 주둔했던 수군 병력은 3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한말까지 충청 서해안의 수군과 조운을 관장하는 응부로 존재하다가 1895년 갑오경장으로 폐치(廢置)되었다. 오천군은 바로 이러한 행정편제의 변화와 짝하여 1901년에 종전의 충청수영이 있던 경역에 새롭게 설치된 고을이다. 그리고 1914년의 고을 통폐합에 의하여 보령군으로 통합되었으니, 고을로서의 오천군은 10여년 남짓 존속한 셈이다.